완도~제주 뱃길 승객 급증

올 13만 7000명 … 지난해보다 31% 늘어

100분이면 도착 … 육지서 가장 빨라 인기

올 상반기 완도와 제주도를 잇는 뱃길 승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완도~제주 항로 운항 선사인 ㈜한일고속에 따르면 지난 1~4월 이용객이 13만7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0만4000명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이는 쾌속선 '한일 블루나래호'(3300t급) 운항과 국도 13호선의 4차로 확장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슬로 시티'인 청산도를 비롯해 보길도, 신지 명사십리 등 전국에서 가장 매력있는 완도를 방문하고 제주도를 찾는 연계 관광객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취항한 '블루나래호'는 여객 572명과 차량 84대를 싣고 34노트(시속 62.96㎞)의 속도로 운항해 육지에서 제주까지 가장 빠른 1시간 40분에 도달,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한일고속은 승객 유치를 위해 수학여행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선상 그린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완도 시외버스 무료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국도 13호선 해남 삼산~남창간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4차선으로 연결돼 더 많은 관광객이 완도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완도~제주간 뱃길 이용객은 36만8000여명에 달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영광원전 '비리 척결 의지' 없다"

납품비리 근절 위한 반부패시민감시단 5명

원전에서 지원하는 각종 단체 장들로 위촉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납품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반부패 시민 감시단'을 발족했으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감시단 5명이 다문화센터·생활체육회·문화원·교직원연합회 등 영광 원전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전·현직 단체 장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언론 기자 등 중립적인 5명의 외부 인사로 시민 감시단 위원들을 구성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영광원전이 이번에 위촉한 시민 감시단은 시민단체와 지역언론 기자 등은 아예 제외시키고, 영광원전이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연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게 지원하는 단체장 또는 전직 단체장들로 위촉됐다.

이 때문에 자칫 친(親)원전 성향으로 흘러 부패 척결 의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직원들의 부조리 행위 제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이다.

감시단은 또 한수원 기동 감찰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영광 원전이 뇌물사건, 짝퉁 부품사건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놓고 원전이 직접 지원하는 단체장을 '반부패 시민감시단'에 위촉한 것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원전이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부패의 음모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마저 든다"고 말했다.

영광원전 관계자는"영광 원전을 가감없이 비판할 수 있고, 지역에 명망있는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으며, 영광 원전에서 지원하는 단체 장인지를 모르고 위촉했다"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최대한 효과로 비리를 조기에 적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 3월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상임 감사 직속의 기동 감찰팀을 신설하는 한편검사 출신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상시적인 암행 감찰을 시행하고, 대내외 비위 신고 채널 강화 방안으로 '24시간 부패신고 전용전화'(hot line)를 개설, 발생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농어촌 놀이문화 사업' 전남 9곳 선정

문광부 공모, 악기 대여 등 9천만원 지원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마을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식품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고흥 마동마을 '승승장구', 장흥 대리마을 '천년학의 풍물소리, 신바람 풍물난타', 장성 자풍마을 '자풍 풍물놀이마당 복원사업', 진도 서외마을 '도깨비 굿놀이' 등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로 구성된 기존 풍물단이나 새로 만들려는 읍·면·동·리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국 40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악기 대여와 전문가 강습비 등 최대 9000만원이 지원된다.

장성군 남면 자풍마을은 맥이 끊어진 지 20여 년이 된 마을 풍물패를 복원해 매년 개최하는 단감축제와 경로잔치 등 각종 마을행사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또 자매결연 학교 학생들에 대한 풍물놀이 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진도읍 서외마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 마을 아낙네들이 모두 나와 가면을 쓰고 도깨비굿을 통해 도깨비를 가뒀다가 중굿날(음력 9월9일) 도깨비를 풀어준다는 '진도 도깨비 굿놀이'를 재연한다.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사업은 마을문화 복원과 전승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희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과거에는 마을마다 풍물단이 있어 공동체 행사를 주도했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맥이 끊기거나 소홀히 다뤄져 왔다"며 "각 마을의 전통문화와 풍습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아 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상의 회장 29일 선출

임시 의원총회 열어

목포상공회의소 신임회장이 오는 29일 선출된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제21대 회장으로 추대된 주영순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29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상공 의원 70명이 참석할 의원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과 비어 있는 나머지 임원을 각각 선출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수도사고 위기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K-water 전남본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4일 상황실에서 현장 실무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사고 위기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유해물질 운반 차량이 전복돼 순천 이사천과 별량 정수장에 황산이 유입되고,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하수처리장이 침수되며 미처리된 하수가 댐내에 유입된 상황을 가정해 전개됐다.

비상근무조는 수질 오염사고 발생 현장을 확인한 후 사고 발생 보고와 함께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이어 전남지역본부와 산하관리단에 비상대책반이 소집돼 단수현황 파악→비상용수 공급→긴급복구계획 수립→장비 및 자재 투입→, 수용가 및 언론에 대한 단수 홍보 등 적절한 대응절차가 진행됐다.

신송운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훈련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메뉴얼화해 수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마늘 수확도 이젠 기계로 고흥군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난 23일 마늘생산 농업인 및 농기계 생산업체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 생산 기계화 현장 연시회를 가졌다. 이날 마늘 파종기와 마늘 수확기 등 6종의 농기계가 소개됐다. 〈고흥군 제공〉

이순신대교 인근에 식당촌

광양시, 54곳 신 메뉴 개발 … 9월까지 조성

광양시가 최근 개통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이순신 대교' 인근에 식당촌을 조성한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 대교'가 지난 10일 임시개통되면서 양 도시간 거리가 8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부상해 이에 맞춰 주변에 먹을거리 타운을 만든다.

그동안 광양 숯불구이와 전어, 섬진강 재첩국 등이 광양의 대표 음식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나 전국화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이순신 대교를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마칠 예정인 타운 조성사업은 별도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이순신 대교 들머리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기존 식당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상가가 밀집돼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하단부 70여개 식당을 대상으로 외식 전문업체 컨설팅 전문가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신메뉴 개발 등 개별 식당별로 맞춤형 진단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참여를 결정한 54개 업소는 기존 메뉴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업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천연 조미료만을 사용한 웰빙 음식을 조리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